2001년 새로운 세기의 출발과 함께 창간된 열린 문학의 장인 〈문학판〉. 편집인 이인성 소설가는 "문학의 상업화에 맞선다는 기본 취지 아래 대중적 감각과 지성적 이해를 결합시키며 평단에서 소외된 신인작가의 전위적 작업을 부각시키겠다는 포부"로 창간했다. 그러나 2006년 겨울호(통권 21호)를 출간하고 무기한 휴간결정을 내렸다. 열림원 측은 "2001년 겨울호부터 출간한 〈문학판〉을 출판사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번 봄호부터 무기한 휴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문학판〉은 창간호의 특집인 엽기적 상상력을 시작으로 복고풍 현상, 잡종문화의 시대, 문학과 환상성, 에로스/포르노, 텍스트와 주체, 축제와 제의, 현대적 폭력, 희극사회-희극문화, 시민사회-시민문화, 새로운 세대의 문학과 대중문화, 우리 앞의 미국, 불황의 문화, 역사적 상상력, 문학의 진정성, '차이'의 풍경들, 여행문학, 문학여행, 탈영토의 흐름들, 생명의 문제, 문학사회 등 특집들을 통해 문학과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은 읽어냈다. 그리고 그러한 징후들은 21세기 문학의 정신과 흐름을 이끄는 소중한 주제가 되었으며, 역사적 문맥과 현재적 해석의 테두리를 확보했다.

〈문학판〉창간 5주년 권두 제언에 최원식 문학평론가는 "문학의 변경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기운을 포착하여 문학판의 이동을 점검하겠다는 도전적 기획을 제출한다. 문학적 교양의 옹호와 전위적 작업의 발견이라는 이 잡지의 모토는 일견 상충하는 듯해도, 창조적 소수의 고독한 작업을 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내면으로는 일관적이다. 이런 잡지가 하나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 잡지의 순항을 충심으로 기원했다. 그리고 어느덧 5년, 〈문학판〉은 소리 소문 없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메시지를 담아 〈문학판〉의 휴간을 안타까워하는 듯 보였다.

소장 평론가들이 주축이 돼 지난 1999년부터 의욕적으로 발행해왔던 반년간지 〈비평과 전망〉도 폐간 상황에 처해있으며, 계간 〈문학과경계〉는 재정난으로 2006년 겨울호를 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편집인과 문인들이 십시일반 재원을 마련해 겨울호를 발행했다.

최근 '한국문학의 위기'가 공공연해지고 일본소설 등 외국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지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급격히 낮아졌다. 독자층의 감소는 경영악화에 맞물려 창작공간은 최악의 경우 휴간하거나 폐간에 이르게 된다.

취재_정윤희 기자

한국잡지협회가 2007년 2월 23일(금)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 열고 제37대 한국잡지협회장으로 노영현((사)한국물가정보 회장 및 월간 〈종합물가정보〉 발행인) 씨를 선출했다.

신임 노영현 회장은 한국잡지협회에서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잡지정보관 설립, 국제잡지연맹(FIPP) 아시아 · 태평양지역 서울대회 개최, 잡지금고기금 증액 등에 크게 공헌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제37대 회장으로 재추대되었다. 신임 노영현 회장으로 앞으로 2년동안 한국잡지협회 회장직을 맡는다. 아울러 감사에는 박한식(월간 〈전자부품〉 발행인)과 이영희(월간 〈기계기술〉 발행인)가 선출되었으며, 제37대 한국잡지협회 임원선출을 위임받은 전형위원으로는 김정석(월간 〈설비기술〉 발행인), 김영곤(월간 〈AFN〉 발행인), 정광영(월간 〈건축세계〉 발행인), 김성미(월간 〈댄스스포츠코리아〉 발행인), 김기원(월간 〈배드민턴〉 발행인), 전웅진(월간 〈수사연구〉 발행인), 남궁영훈(월간 〈에스테티카〉 발행인), 이갑주(월간 〈반도체네트워크〉 발행인)이 각각 선출됐다.

취재_정윤희 기자